



민족문화 수호의 날까지 정진 또 정진



“민족문화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의 그날까지 정진 또 정진할 것을 발원합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밀도는 강추위도 민주주의 회복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열의를 식힐 수 없었다. 조계종은 1월 1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1080배’를 봉행했다. 이날 1080배 정진에 참여한 300여 조계종 중앙총무기과 및 산하기관 중무원들은 “오늘 올리는 참회와 발원을 기점으로 불교계와 조계종단이 먼저 자성하고 변화하겠다”며 “민족문화수호와 종교평화, 민생안정과 민주주의 회복의 날이 올 때까지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o@hanmail.net

## 총무원장 스님도 못보는 선암사 수장고

### 순천시, ‘관계자만 볼 수 있다’ 개방 거부 파문

태고종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스님들이 순천시의 거부로 선암사 성보박물관 수장고를 열람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순천 선암사(주지 경담)는 1월 12일 신년하례법회 후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과 종단 주요 스님들이 선암사 성보문화재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수장고를 열람키로 했다.

4일 순천시에 수장고 개방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11일 “박물관 수장고는 관계자 외에 다른 사람이 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유물을 보관하는 곳으로 아무런 목적 없이 단순히 개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거절 당했다.

선암사는 11일 재차 공문을 보내 “순천시 소속 학예사 동행 하에 12일 수장고 기계실을 전문가가 점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여름 물이 들었던 수장고의 내부 실태를 우려해서였다. 순천시는 선암사의 재요청에도 12일 “수장고를 관람하기 위한 기계실 점검은 맞지 않는다. 점검 일정을 다시 통보해 달라”며 수장고 개방을 재차 거부했다.

선암사와 순천시의 불편한 관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선암사는 구립 13일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선암사 성보박물관 장직을 개신교 안수집사인 노관규 순천시장이 겸임하면서 수장고에 소장된 문화재 2400여 점이 전위

감정조차 받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선암사도 난문화재의 약 90%가 순천시가 선암사 재산관리를 하는 동안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은 “거주하는 스님들이 자기 절 문화재를 보관하는 수장고도 못보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며 의혹을 제기했다. 스님은 순천시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지난해에는 순천시에서 오후 10시 선암사 출입문을 닫아 주지인 본인조차 선암사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재산관리를 맡은 것이 선암사 주인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선암사의 정상화 기자회견 이후 순천시는 재산관리권을 “조계종에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조계종과 태고종간 분규사찰인 선암사의 상황을 악이용해 재산관리 부실의 책임을 불교계 내부의 갈등으로 회색시킴을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선암사는 “재산관리인 해제와 별개로 순천시가 지난 40년 간 선암사를 관리하는 동안 벌어진 문화재의 도난 및 훼손, 방치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순천시는 재산관리인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조계종과 태고종, 순천시는 조사팀을 구성해 선암사 성보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앞두고 있다.

노덕환 기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우리는 정부인사 만나겠다”

천태종, 민족문화수호 관련 독자 노선 밝혀

천태종이 조계종과는 다르게 정부·여당인사와의 접촉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1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회에서 “상월 조사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에 정부·여당 인사들을 초청하겠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정산 스님은 “조계종이 정부·여당과의 단절을 선언한 것은 예사 같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평화의 도란 및 훼손, 방치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순천시는 재산관리인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조계종과 태고종, 순천시는 조사팀을 구성해 선암사 성보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앞두고 있다.

노덕환 기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는 하지 않겠다. 조계종에서 요청해 와도 정부·여당과의 단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계와 정부가) 상생해야 한다. (정부·여당 인사들을) 배척했다가 불교를 완전히 등지버리면 불교가 설자리가 없다. 뜻을 같이 하는 정부·여당이 있다면 같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조계종과 정부의 갈등 관계 속에서 천태종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2면) 조동섭 기자

### 부처님 탄생지 발굴 시작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톱비니 유적지 조사를 위해 세계 고고학자들이 나섰다.

네팔 현지 일간지인 히말라얀 타임즈 1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현지 고고학 전문가들과 톱비니 개발신탁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은 영국 더럼대학 고고학과 교

수인 로빈 커닝엄 부총장을 단장의 지휘 하에 3년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네스코네팔위원회는 조사단이 지표면 아래에 남아 있는 고고학적 위치를 규명하기 위해 작업하며 성지 순례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발은 유적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신상품 LED인등·전구**

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농인양당**

농인양당의 침향전문점

침향복합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 본사 02-3663-6777 www.nhwa.com

819호 CONTENTS

특명기획 10/11 미얀마 난민수용소를 가다(하)

기획연재 12 선원총림을 가다

14/15 목산 스님 선지식을 찾아서

24 정찬주의 선 여행

새 연재 소설 수리아의 검 16

## 구제역 동물만의 문제 아니다

불교계, 동물은 반려자이자 도반 ‘예방접종 확대하라’

“육도 중생이 모두 나의 부모인 데도, 죽어서 먹는 지는 곧 나의 부모를 먹는 것이며 나의 옛 몸을 죽여서 먹는 것이니라. 만일 세상 사람이 축생을 죽이려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마땅히 방편을 구하여 보호하고 그 괴로움을 풀어 주어야

한다.” (범망경)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이 150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희생 동물을 위한 천도제가 전국 각 사찰에서 봉행됐다.

구립 30일 경기도 가평 백련사(주지 승원)에 이어 평창 월정사(주

지 정남)는 1월 4일 초하루 법회에 구제역 확산방지 및 희생가축을 위한 합동 위령제를 열었다.

축산 농가가 없는 서울에서도 천도제는 이어졌다. 6일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에서 봉행된 천도제에는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구제역으로 목숨을 잃은 생명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 13일 서울 도선사(주지 해자) 108산사 순례기도회는 ‘구제역 및 조류독감 확산방지와 희생가축을 위한 천도제’와 함께

실의에 빠져있는 축산 농가에 위로금을 전달했다.

강원도 종교평화협의회도 14일 구제역 관련 호소문을 발표하고 “우리는 구제역 창궐로 인해 부득이 살처분 당하는 가축들의 명복을 빈다. 이번 사태는 인류의 무질제한 물질적 탐욕과 환경 파괴, 생명에 역행하는 유해식품과 동물사료의 생산 등 반생명적 식습관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3면) 이상언 기자

노동부 지원 사회적기업(예비) 초의신다 최고급상 수상

# 한국 보이차

## 설맛이 할인행사

청와대 사랑채 나눔 김포공항 4F 입점 T:061-285-0301~2

지난해 여름 선보였던 한국 보이차(청차 보이, 황차 보이)에 보내주셨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매진되었고 그 뒤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저렴한 가격의 생병(녹차 보이)을 만들었습니다. 할인 판매는 2011년 설명절까지만 받을 예정입니다.

바로 드셔도 좋은 차이지만 1년 이상을 묵혀 드시면 더욱 맛있게 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 보이차 설맛이 할인행사 가격	
구분	보이차 300g
할인 가격	25,000원 → 15,000원
할인 기간	2011년 1월 31일까지
차 만든 시기	2010년 9월 1일 ~ 2010년 10월 10일

좀 더 다양한 맛의 차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고급 보이차! 가격 50,000원 (다섯 개이상 구입하시는 분께는 할인행사 보이차 1개를 더 드립니다.)

뜨거운 물로 다관에서 우려 드셔도 좋으며, 떡차처럼 끓는 물에 넣어 다시 한 번 끓여내어 승냥처럼 드시면 더욱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찾았으로 만든 초의병차는 무농약, 친환경, 위생문제를 해결했으며 한국인의 미각에 맞는 깊은 맛과 향을 차인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차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초의차사업단에서 정성들여 준비한 한국보이차로 추운 겨울에 온기를 전해 드립니다.

구입 및 문의 061-285-0301, 2

(사) 초의학술문화원

입금 우 체 국 500033-05-002572 (사) 초의학술문화원  
국민은행 796201-01-376888 (사) 초의학술문화원

- 입금시 주문자 이름과 동일하게 해주십시오.
- 제품에 불만이 있을 경우 100% 환불해 드립니다.

▲ 2010년 국제차문화대전 참가 ▲ 농림수산식품부 장래평정관과의 오찬간담회 6월 12일 ▲ 2010년 목포도자기축제 참가 ▲ 일본 기타리노아 시장 방문 ▲ 2010년 초의신사탄생문화제 - 초의신사학술세미나 ▲ 초의학술문화원 - 목포우체국 업무채용시험 7월 22일 ▲ 광역시예절교육관 한국 보이차 세다 실습 6월 17일 ▲ G20 정상회의기념 아인이행다법 시연 ▲ 청와대 사랑채 디도 체험 ▲ 청와대 사랑채 행사 사진 및 무료시음 행사

청와대사랑채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행사시연 및 무료시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초의학술문화원 전화 : 061-285-0301,2 choyetea.co.kr 후원 : 무안군